

## 서울CO2위원회 창립선언문

지금 우리는 미래세대의 희망과 절망을 좌우할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산림파괴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증가는 인류의 미래를 불안하게 함은 물론 다른 생명체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인간으로 말미암은 오늘날의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숙제이자 인류의 미래와 지구에 대한 의무이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채 오직 인간의 편의와 풍요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과거를 겸허히 돌아보면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지난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 발효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에 대한 실질적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세계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본격적인 대책과 실행 계획들을 마련해야할 시점에 와 있으며, 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 수립은 물론 지자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준비와 노력 또한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서울CO2위원회를 발족하여 지자체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서울시와의 협력과 견제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할 것이며,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온실가스 저감 모범도시 '서울'을 이루어나가고자 한다.

오늘 발족에 맞춰 서울환경연합 서울CO2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1. 에너지 소비형 도시, '서울'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절약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과 함께 실천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풍력, 태양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1.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및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교통체계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1. 시민들의 생태적 삶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환경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1. 시민과 NGO, 정부, 기업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마련한다.

2007년 2월 27일

서울환경연합 서울CO2위원회

김대홍 (오마이뉴스 기자), 김동환 (고려대학교 교수), 김용배 (서울환경연합 생활환경실천단 에너지.대기분과장), 김순철 (강서양천 환경연합 집행위원장),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진명 (내일신문 기자), 김춘열 ((주)지앤씨테크놀러지 대표이사), 서운종 ((주)지케이에너지 대표이사), 안창희 ((사)한국지속가능에너지협회 상임이사), 이원영 (오마이자전거 운영자), 이효성 ((주)찬성에너지 대표이사),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 조용성 (고려대 교수), 최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한만정 (녹색자전거봉사단 단장)